

영암군민장학회 지역인재 양성 '보금자리'

2008년 출범 이후 146억원 모아 장학금 지급액 전남 1위
교육사업 56억 지원...학습 향상·역외 우수학생 유치 견인

전남에서 장학사업 선두주자를 유지중인 영암군민장학회가 전폭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학생 실력향상과 우수학생 유치 등 각종 교육 성과를 내고 있다.

15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영암군민장학회는 그동안 교육경비사업 56억원을 지원해 전남도 군 단위 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으며, 지급한 장학금도 33억여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이 전폭적인 장학지원 사업은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입학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도 입시에서만 영암지역 고등

학교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명문 대학 7명, 교육대학에 5명이 진학했으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도 각 35명과 26명이 진학하는 성과를 냈다. 영암지역 학생의 실력향상 성과 등이 알려지면서 타지역 학생들도 영암으로 몰려 들고 있다.

영암여고의 경우 1개 학년 150명 학생 중 타지역 출신 학생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 2월 출범 후 1200여명에 이르는 기탁자의 후원으로 2015년 10월 현재 146억여 원의 장학금을

모았으며, 지금까지 총 3300여 명의 학생에게 38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 장학금이 첫 수여된 2009년만 해도 2개 분야 학생 7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올해에만 10월 현재 ▲종합학력 우수학생 장학금 ▲영재교육원 장학금 ▲고등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진학 관외 중학교 졸업생 기숙사비 지원 ▲희망복지장학금 등 총 14개 분야에서 4억5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영암군민장학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대도시로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중학교에서 내신성적 10% 이내인 학생이 영암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장학

금을 지급하는 등 '내 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영암군민장학회의 현재 장학기금 잔액은 11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장학금을 쾌척하는 기탁자들의 성원과 장학금 수혜학생의 범위는 유지하면서 장학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장학회 이사회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영암군민 장학회 이사장인 전동영 영암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정한 장학금 지급과 100년, 200년 후에도 영암군민장학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유지에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장흥군 친환경 생태 휴양마을 시범단지 43세대 첫 분양 입주

2019년까지 1500세대 조성

장흥군 친환경 생태 휴양단지 마을인 '로하스타운'이 첫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안양면 사자산 자락에 조성된 로하스타운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500세대, 3000명 유입을 목표로 1차 43세대 시범단지가 분양(입주)을 마쳤다.

장흥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233만㎡(70만평) 부지에 랜드로 비스코리아(주)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총 3600억원을 투입해 로하스타운을 조성중이다. 군은 사업 진행 방식을 8단계로 나눠 베이비부머 은퇴자, 귀촌, 귀농인 등의 고급 웰빙 타운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첫 43세대가 입주한 장흥 로하스타운은 수많은 원형 녹지공간을 최대하고 보존하는 등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꾸며내 '숲 속의 궁전'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애초 은퇴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

는 예산을 깨고 43세대 가운데 50세 이하가 23세대로 절반이 넘는데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소지를 둔 외지인이 25세대에 이르고 있다.

로하스타운은 장흥읍에서 자동차로 불과 10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30평형 최고급 단독빌라형으로 조성돼 프리미엄급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1단계 157세대 가운데 나머지 114세대는 오는 12월 초 분양공고하고, 내년 말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정 장흥군 로하스타운 사업소장은 "로하스타운 입주와 함께 인근 해당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일자리고용창출, 돛 하우스행태의 유기농 농산물 재배, 고사리단지 등 입주민들의 농가 소득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43세대 입주자에 대한 지적 분야 행정절차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거주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 농민들 월급 받는다

郡, 신규농업정책 토론회

강진군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월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을걷이 이후 목돈으로 발생하는 벼 재배농가의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계 농업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신규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강진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인이 농한기 동안 영농준비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농업인 행복 월급제'의 시행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안정기금 조성 계획 등 25건의 신규정책을 발표했다.

행복 월급제는 농업인들에게 연간 800만원 월 최대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안정 기금은 지역 재배 발작물이 최저가격으로 형성될 경우 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해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박재도(친환경연합회장) 위원은 이날 "통신비, 농자재, 경조사, 학자금 등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농가의 여건에서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매우 좋은 제도"라면서 "다만 적절한 규모와 상한금액(1년 800만원)은 상향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친환경 생태 휴양단지인 로하스타운이 장흥군 안양면 사자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장흥군 제공)

강진군 양식장비 임대 사업 펼친다

해수부 공모 전국 유일 선정...국·도비 8억 확보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도비 7억 8000만원 등 총사업비 12억원으로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해 어가에 임대하여 주는 '2016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양식장관리선, 해상크레인 등 양식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높은 가격 때문에 어업인들이 구매할 수 없었던 양식장비를 군이 구입한 뒤 수협과 관리위탁 계약을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해상크레인, 고압세척기, 작업대 등이 포함된 10톤 안팎의 양식장관리선 9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양식장비가 필요한 어가에 임대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이 지난 14일 열린 조찬회에서 안전과 생산 공정 등 주요 현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위기 극복, 모기업·협력사 따로 없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협력사 업계 최초 '생산및 안전 상시 조찬회'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 협력사 대표들이 업계 최초로 상시 조찬회를 열기로 하는 등 회사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4일부터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 및 안전 조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첫 조찬회에서 회사측의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력사 대표들의 조찬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아침 식사를 곁들이면서 진행되는 회의로, 생산과 안전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업체 간 공유하게 된다.

협력사 대표들이 조찬회를 하게 된 것은 모기업 중심의 수동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생산 및 안전 등 분야의 현안을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해양사추설비의 발주가 줄어드는 등 조선업계에 불어닥친 위기감을 극복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현재 저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도 상생을 통한 위기 탈출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모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면 협력사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도 자발적인 상생협력의 형성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협력사인 남부산업 김용호 대표는 "조찬회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은 결국 협력사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모기업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 관계자는 "협력사 대표들이 업무 시작 전 여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체 간 긴밀한 협력을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최근 어려운 회사 경영여건을 극복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문병기기자 moo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11월 16일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DaWa 다와옥션 경매/공매

보상경매 누문동 대지 305평 감평가 11억7천백 최저가 8억2천

상가, 수익 호 대지 1115.3㎡ 건물 1683.29㎡ 감평가 22억3천 최저가 15억 6천

3층 근린주택 진월동 대지 331.0㎡ 건물 526.48㎡ 감평가 8억2천백 최저가 6억2천백

소장/공인중개사 이승현 010.8252.8959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중흥동 대로변(병원, 사육적합) 상업지역 대지396㎡ 건물1,750㎡ 지하1층~지상5층 감평가 13억7천3백 최저가 4억9천2백 접근성, 광고효과★★★★ 감평가의36%
- ★북구 누문동 수창초등학교인근, 단층 근린시설 대지1009.9㎡ 건물787.2㎡ 뉴스타이개발지역 2천6백세대아파트추진 수익성★★★★ 감평가 11억7천2백 최저가 8억2천 감평가의70%
-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맞은편 3층상가건물 대지285㎡ 건물871㎡ 접근성, 가격★★★★ 건물상대양호, 현기아자동차직영점중 감평가22억3천5백 최저가15억6천5백 감평가의70%
-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3층무인텔 대지1522.5㎡ 건물1999.6㎡ 감평가34억5천6백 최저가24억1천9백 감평가의70%
- ★남구 진월동 진월국제테니스장 맞은편 3층 근린주택, 대지331㎡ 건물526㎡ 왕복4차선도로접, 접근성★★★★ 감평가3억9천8백 최저가2억7천9백 감평가의7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잔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투데이 옥션 부동산경매 추천물건

- 광주 북구 유동 상가건물 대로변 위치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근 대지 796㎡ 건물 2704㎡ 지하 1층 ~ 지상 5층 감평가 24억 3천 최저가 17억
- 광주 북구 각화동 수익 상가건물 금호 타운 맞은편 대로변 위치 현 1층 기아자동차 영업소입점 지상 1층 ~ 3층 대지 1115㎡ 건물 1683㎡ 감평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 광주 서방 삼거리위치 광주은행 건물 대지 503㎡ 건물 581㎡ 감평가 15억 최저가 15억
- 전남 화순 만연리 아파트 밀집상권 상가건물 대지 423㎡ 건물 992㎡ 지하층 ~ 지상 2층 감평가 9억 5천 최저가 7억 7천
- 광주 남구 주월동 상업지역 대지 554㎡ 건물 554㎡ 감평가 15억 5천 최저가 10억 1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NAVER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단비플라워 죽야화환3천 근조화환3천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